

1998년 2월 21일,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다.

열두 살 많은 조용한 남편과 열두 살 어린 철없는 아내. 그때는 사랑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다. 하지만 결혼은 사랑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한집에서 살아가며 이해와 배려를 배워 가는 일이었다.

결혼 후 나는 한 번도 일을 손에서 놓은 적이 없다. 30년 가까이 워킹맘으로 살면서 우리 집은 늘 분주했다. 저녁 반찬은 한 가지만 있어도 충분했고, 청소는 금요일 저녁이면 온 가족이 함께 끝냈다.

남편은 한 번도 반찬 투정을 한 적이 없었다.

“하기 쉬운 거 아무거나 괜찮아.”

라면을 끓여도, 고기를 구워도 늘 맛있게 먹어 주었다.
그러곤 늘 웃으며 말했다.

“이래 먹으나 저래 먹으나 어차피 배부른 거잖아. 난 다 좋아.”

그 말 한마디면 퇴근길 무거웠던 마음이 스르르 풀렸다.

가장 힘들었던 시간은 아이가 생기지 않았을 때였다. 출근 준비를 하는 아침이면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왜 아이가 안 생기니? 병원은 가봤니?”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았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말없이 내 손에서 전화를 받아 들었다.

“어머니, 출근하는 사람 붙잡고 아침부터 왜 그러세요.”

그리고는 내 대신 어머니와 이야기를 했다.

그때는 그저 남편이라면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 돌아보니 남편은 늘 가장 먼저 내 편이 되어 준 사람이었다.

열두 살이나 나이가 많지만 세대 차이를 느껴본 적은 거의 없다. 오히려 늘 배우려 했고, 내 의견을 존중해 주는 사람이었다. 때로는 너무 이성적이라 서운할 때도 있었지만, 돌아보면 그만한 상담가도 없었다. 시댁과 나 사이에서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잡아 준 사람 역시 남편이었다.

우리 부부는 결혼 초부터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생긴 약속이 있었다. 청소와 빨래는 남편이, 밥과 설거지는 내가 맡았다. 누가 정한 것도, 규칙을 만든 것도 아니었다. 서로 잘하는 일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고, 그것이 우리 가족에게 가장 편한 방식이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대부분의 육아를 내가 맡았다. 물론 힘들었다. 늦잠 한 번 자 보는 것이 소원일 만큼 지치는 날도 많았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누구의 희생을 따지기보다 서로의 수고를 먼저 알아주려고 했다.

신혼집 작은 빌라에서 10년을 살고 아파트로 이사하던 날이었다. 당연히 계약도 남편 명의일 거라고 생각했다. 결혼 후 집도, 차도 모두 남편 명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계약서를 받아 든 나는 깜짝 놀랐다.
계약자 이름이 내 이름이었다.
의아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자 남편이 웃으며 말했다.

“10년 동안 내 집이었으니 이제부터 당신 집으로 살아.”

그 한마디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집뿐만 아니라 새로 산 자동차도 내 명의로 계약해 주었다.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미처 알지 못했다.
돌이켜 보니 남편은 오래전부터 나를 같은 자리에 세워 주고 있었다.

지금도 남편은 흰 빨래와 색깔 빨래를 누구보다 잘 구분해서 돌린다. 나는 밥을 하고, 남편은 청소와 빨래를 한다. 우리는 누가 시켜서 역할을 나눈 적이 없다. 서로 잘하는 일을 자연스럽게 맡았고, 서로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다.

30년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왜 없었겠는가. 경제적으로 힘든 날도 있었고, 의견이 달라 다투는 날도 있었다. 그래도 우리는 “내 일”과 “네 일”을 따지기보다 “우리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그리고 문득 그날이 떠오른다.
아파트 계약을 하던 날, 계약서를 내밀며 남편이 건넨 한마디.

“10년 동안 내 집이었으니 이제부터 당신 집으로 살아.”

그 말을 들은 지도 어느덧 20년이 흘렀다.
지금도 저녁이 되면 우리는 한 식탁에 둘러앉는다.
아이들에게도, 내게도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남편은 늘 말한다.

“우리는 한 팀이잖아. “

그날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한 팀이다.